



주간통일정세 2009-34(2009.08.17~08.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북 양어장 현지도(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개건된 평안북도 구장군의 구장양어장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양어장을 돌아본 뒤 “우리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과 온천이 많기 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어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현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이 수행

● 김정일, 평남 화전·탄광 현지도(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 청년탄광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력 증산을 강조하고 2.8직동청년탄광에선 “공업의 식량인 석탄 생산을 늘이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석탄 증산을 다그쳤다고 전언
- 현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박남기 장성택 노동당 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매체, 조문단 李대통령 면담 보도(8/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귀환한 북한의 특사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해 주목
- 통신은 이날 조문단이 도착한 직후 조문단의 귀환 사실만 보도했다가 약 3시간 후 조문단이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며 “석상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언
- 통신은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남측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가하였다”고 덧붙임.



- 북한 매체들은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중인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적패당” 등의 험구를 던지고 현인택 통일장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극심한 비난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이날 북한 조문단이 이 대통령을 면담해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이날 오후 2시1분께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던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이 23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 북한은 이번 조문단에 대해 파견 사실부터 출발, 귀환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정을 신속히 보도

● **李대통령, 김정일 구두메시지 접수(8/23,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음.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발표
-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
-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언,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예방 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언급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조문단 접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외교관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
-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배석
- 한편 지난 21일 서울에 도착,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렀던 북한 조문단은 이 대통령 면담 직후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감.

● **김양건, 남북간 직접교역하면 상호이익(8/22, 연합)**

-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22일 “(남북간)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사회·문화교류도 하고 의원교류도 하자”고 밝힘.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방문중인 김 부장은 22일 남측 인사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전언
 - 그는 또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아직 1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계적인 일류 공업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시대가 달라졌다. 냉전잔재는 가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강조, 김 비서는 이어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며 “대화에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석 자 얼음이 하루 아침에 다 녹을 수야 있겠느냐”고 언급
 - 그는 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배나 현지지도(현장시찰)를 많이 했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 회장도 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건강하시다”라고 설명
 - 그는 정 의원이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지도자의 결심 단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언
- 북 조문단, “김정일 메시지 있다” 이 대통령 예방 제안(8/22, 연합뉴스)
-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북측 조문단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져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2일 현인택 통일장관과 면담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 현 장관과 김 부장은 22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면담, 오전 10시 20분 부터 시작된 면담에는 우리 측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측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각각 배석했고, 면담은 1시간 24분 만인 오전 11시 44분에 종료
- 북 조문단 방한 이모저모(8/21, 조선일보)
- 21일 오후 2시 59분. 북한 고려항공소속 76석짜리 러시아제 소형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방한
 - 오후 3시53분 김 비서 등 북측 사절단이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 방명록에는 ‘정의와 양심을 지켜 민족 앞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특사 조의방문단 김기남’이라고 썼음. ‘조문단은 조화를 앞세우고 빈소로 올라감. 분향과 묵념을 한 뒤 조문단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김홍걸씨 등 유족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한명숙 전 총리,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수십 명과 악수를 진행,

- 조문을 마친 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김 비서에게 “김형오 국회의장이 차 한잔하자고 한다”며 면담을 제안했고, “그러자”고 답해 김 의장과 10여분 동안 면담이 이뤄짐. 김 의장은 “이번 기회가 남북 관계 돌파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김 비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북남 화합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화답
- 오후 4시35분 조문단은 국회를 떠나 미망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기 위해 동교동 김대중평화센터로 이동.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박지원 의원은 “김 비서가 함께 온 홍양호 통일부 차관에게 ‘(누구든) 다 만나겠다’고 했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펼쳤으니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언
- 김 비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전달. 그는 북측의 조의 메시지가 적힌 문서를 꺼내 읽고 난 뒤 이를 이 여사에게 전달함.

● 주러 북한 공사, 김 前 대통령 조문(8/22, 연합)

-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오승호 공사가 22일 오후 2시 45분께(현지시간) 주러 한국 대사관 1층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 다른 2명의 북한 외교관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오 공사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조의를 표시
- 오 공사는 조문록에 “김 전 대통령의 애석하게 서거한 데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시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분향소를 지키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돌아갔음.
- 우리 측 외교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의 한국 대사관 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각지 북한 공관이 일제히 조문을 하는 것을 보면 본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北조문단장 김기남 비서, 21일부터 2일간 방남(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보내는 ‘특사 조문단’은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통신은 20일 조문단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힘.
-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공식활동에 대부분 수행하는 최측근으로 선전선동과 역사문제를 담당



● **北공진태 전 부총리 사망(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공진태 전 정무원(현 내각) 부총리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전 정무원 부총리 공진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소개
- 공 전 부총리는 1971년 대외경제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외경제전문가로 1975년 부총리에 올랐고 1980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 겸 무역담당 부총리로 활동, 1985년부터 정무원 인민봉사위원장을, 1994년부터는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때 공직에서 물러났음.

● **노동신문, 김 전대통령 서거·조건 실어(8/1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9일 발행된 신문 2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건을 실었고, 4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전 5시 30분께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짧게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조건을 보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의 기사 작성과 편집은 전날 마감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조건의 문구 작성 등을 이미 18일 마무리하고 신문 발행에 맞춰 중앙통신을 통해 조건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오전 “(노동)신문은 2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전 남조선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건을 실고...”라며 조건 게재 사실을 알림.

● **北외무성, 한·미 도발에 강경대처(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것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에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며 그 어떤 도발에도 강경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이같이 말하고 “사태는 우리가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기로 결심한 것이 천만번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국면전환 조짐, 南 정책전환 기회(8/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 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사실을 “북남 교착 타개의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남한의 ‘실용정부’가 “민족자주 궤도에 회귀”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 신문은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통일과 분열, 대화와 대결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외우는 ‘대화’ 타령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요설”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평양, 태양광가로등 시범 설치(8/22, 조선신보)

- 평양시 중심가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이 시범 설치됐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이 ‘태양빛 전지 가로등’은 평양시 창전네거리에 처음 설치됐으며 낮에 한번 충전후 3일간 야간조명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
- 소형 태양판 2개와 발광다이오드(LED)등, 자동조절장치, 축전지로 이뤄진 이 태양광가로등은 12m 높이에 설치된 50W LED등의 빛세기가 17럭스(lx)로, 같은 높이에 250W 나트륨등을 설치한 것과 같은 밝기라고 신문은 소개
- 북한은 평양시 가로등사업소 기술집단이 개발한 이 태양광가로등의 성능이 확인되면 평양 거리에 전면 설치할 예정

● 北, 10년간 생산중단 비날론공장 내년 재가동(8/20, 조선신보)

- 북한이 ‘주체적 공업’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연내 완공돼 내년부터 비날론 생산이 10여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0일 보도
- 신문은 지난 2007년 시작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년에는 비날론이 다시 쏟아져 나온다”고 기업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소개,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얻은 카바이드를 원료로 합성한 폴리비닐알코올로 만든 합성섬유로, 북한에선 ‘주체섬유’라고도 부름.
- 1961년 5월 준공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5만t이지만 시설이 노후한 데다 원료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비날론 생산이 중단됐음. 신문은 기업소가 “생산공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날론은 단념하고 일부 중간제품만 간신히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었고 “생산체계의 노후화는 촉진”돼 결국 “과거 10년간 비날론 생산은 중단돼 왔다”고 설명
- 생산공정이 완전 가동되면 500여종의 화학제품이 생산되며, 중간제품인 염화비닐은 경공업 원료로,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로, 염산은 발효간장 등 기초식품의 원료로 각각 쓰임.
- 신문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2.8비날론에서 화학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하여 경공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의 생산이 큰 지장을 받았다”며 “비날론의 생산 재개는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화학제품들의 공급체제도 다시 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라. 군사 관련

- **北, 을지연습에 ‘전군 특별경계태세령’(8/1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7일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전군, 전민, 전국은 특별경계태세로 넘어갈 것”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북한군 육.해.공군 부대와 조선인민경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북한의 “하늘과 땅, 바다를 침범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하여서도 즉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명령하고, 전 주민들에게는 “오늘의 참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시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는 이러한 명령은 “무모한 반공화국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한·미군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사소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도” 한다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해 “무자비하고 즉시적인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보도는 을지연습에 대해 북한을 “기습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
 -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을지연습에 대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도발적인 북침불장난 소동”이라며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정책”과 남한의 “반공화국(북) 대결소동”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는 언제 가도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 옥류관 새 메추리 요리 선보여(8/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양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이 메추리 요리를 새로 개발, 9월 1일부터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
 - 메추리 요리 개발은 “메추리 요리는 옥류관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이름난 요리로 만들어 봉사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와 메추리 공급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보도, 옥류관은 김 위원장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본관 1층 2호실을 메추리 요리 전용 식사칸으로 만들어 운영
- **평양 15년이래 최고 무더위(8/21,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등 “15년 이래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신문은 “평양은 한해치고도 가장 더운 때인 삼복(7.14~8.13)을 여러 날째 넘긴 후이지만 30도 이상의 무더위는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의 고온현상은 연례적인 삼복철 때의 무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
 - 평양에선 중복(7.24)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온현상이 시작됐으며, 말복(8.13)을 전후한 지난 12~16일에는 낮 최고기온 34도 이상을 기록, 특히 15일과 16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평균 36.5도로 올라 평년보다 7.3도나 높았음.
- **北, 여성들에 바지 착용 허용한 듯(8/9, 노동신문; 8/18, 자유아시아방송)**
- 노동신문은 9일 ‘옷차림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들에게 “단정한 바지” 차림을 권장하면서 입어도 좋은 바지와 피해야 할 바지를 조목조목 열거, 신문은 특히 “선군시대 생활문화가 날로 활짝 꽃피는 속에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성들의 단정한 바지나 남자들의 T셔츠(셔츠)도 옷차림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소개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선양 한국상품 전문도매상 등의 말을 인용, 평양거주 단골 상인 등이 8월부터 “국가에서 여자들에게도 바지를 입도록 허용했으니 남조선제 여자 바지를 가져다 팔고 싶다”며 견본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북한이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이 상인은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밝은 회색이나, 연한 연두색 또는 청색계통의 점잖은 색깔이어야 하며 무늬가 있는 바지, 소위 나팔바지라고 불리는 통이 넓은 바지, 또 체형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달라붙는 바지, 반바지나 청바지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소개
 - 노동신문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 천한 색으로 보기 싫게 해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하며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고운 천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입는 것이 좋다”고 바지착용 기준을 제시
 - 신문은 “진바지(청바지)나 치마형식의 바지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여성들의 미감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바지 기슭을 걷어 올리는 것, 허리부위가 꼭 조여지지 않고 아래로 처지는 것, 허리 단을 귀 접어놓는 것 역시” 여성들의 외모와 건전한 생활 풍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 또한 여성들의 바지 색깔은 “어두운 것보다 계절과 나이에 어울리는 밝으면서도 고운 색깔”을 선택할 것을 신문은 주문



2. 대외정세

가. 안보리 제재 관련

● 골드버그, 미얀마 대북제재 준수 주시(8/21, 연합)

- 미국은 미얀마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 준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21일 밝힘.
-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있는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 도착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유엔) 결의안의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미얀마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가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인도, 본토서 北무산호 추가 조사(8/20, 연합)

- 인도 당국이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본토로 예인해 추가 조사하기로 함. 앞서 인도 정부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당국이 억류 중인 무산호를 카키나다로 옮기라고 지시
- 인도 당국은 최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MV 무산호에 핵 물질이 실렸다는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음. 익명의 인도 당국 관계자는 카키나다에서 화물을 하역해 좀 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 인도 정부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온 후 자국의 승낙 없이 인근에 정박했던 무산호를 6시간가량 추격해 공포탄까지 쏜 끝에 8일 나포,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선박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

나. 북·미 관계

● 北김명길 일행, 라스베이거스·LA 방문(8/22, 연합)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면담을 마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일행이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21일 밝힘.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김 공사와 북한대표부 백정호 참사가 미 당국에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카지노의 수도(라스베이거스)를 ‘개인적으로 여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확인

● 리처드슨, 北 외교관과 회동(8/19, 연합)

-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과 회동, 리처드슨 주지사의 대변인 앨러리 레이 가르시아는 18일 “주지사가 내일(19일) 뉴멕시코 샌타페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만난다”고 언급

- 이번 회동은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9일 하루 종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언, 김명길 공사는 대표부 인사 1명을 대동하고 리처드슨 주지사를 방문할 예정
- 가르시아 대변인은 어떤 주제를 갖고 양측이 회동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측이 뉴멕시코주에서 개발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 그러면서 “주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아리랑 공연 함께보자’ 클린턴 ‘음식 훌륭하다’ 탄청(8/18,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4일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석방 교섭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Clinton) 전 미 대통령에게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함께 관람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워싱턴의 한 외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아리랑 공연 입장권이 있으니 함께 보자”고 3번 제안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음식이 매우 훌륭하다”는 등의 말로 화제를 돌려 이를 거부했다고 RFA에 소개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전 미 국무부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짐.

● **美국무부, 北조치 충분한 것 아니다(8/17,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현대그룹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다른 길로 가기로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현대그룹 간의 합의에 대해 “명백히 이는 환영할 조치들”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의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조그만 제스처로 환영할 조치”라고 평가
- 그는 이어 “이런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은 본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계속 언급해왔다”고 언급,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그들이 2005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와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힘.
- 특히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근본적인 계산을 했음을 보여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中우다웨이 부부장, 방북(8/21, 조선중앙통신)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7일부터 21일까지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우 부부장이 방북기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익춘 외무상을 예방하고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인, 통신은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조(북)·중 친선관계와 지역정세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됐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우다웨이 부부장은 방북 기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집단체조 ‘아리랑’공연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中 교역 크게 줄어들어(8/19, 블룸버그 통신)

- 북한이 3개월 전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북한-중국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국 접경 단둥 현지 르포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 여파로 양측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19일 보도

라. 북·일 관계

● 6·15실천위, 日 역사왜곡 반대 “전민족적 운동”(8/22,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2일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 99주년을 맞아 결의문을 발표하고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으로 이조(조선)왕국을 포위하고 매국역적들을 사육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불법무효”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독도강탈 기도와 역사왜곡 책동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인 운동”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과 해외측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또 일제의 침략과 약탈, 반인륜적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며 “일본의 재침책동과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할 것”이라고 주장

● 방북 조총련여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8/21, 조선중앙통신)

- 방북한 권경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일꾼대표단이 21일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혁명 박물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삼일포특산물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日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확인(8/20,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북한의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조대위)'는 20일 일제시기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운영하는 고베조선소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가 평안도, 경상도 등에서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
- 조대위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연행됐던 조선인 피해지들에 관한 일본 측 자료 등에 들어있는 42만7천129명의 명단에 기초해 북한지역 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3. 대남정세

● **북 조문단, 체류 하루 연장, 고려항공 전세기 평양 돌아가(8/22, 통일부)**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 사절단 일행이 귀환을 하루 연기, 23일까지 체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2일 밝힘. 북한 조문단이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 이들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던 고려항공 전세기는 22일 평양으로 돌아갔음.
-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고려항공 전세기는 22일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계류장에서 5시간가량 대기하다 오후 6시쯤 이륙해 북한으로 돌아감. 조문단은 빈소에 분향한 뒤 22일 오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청와대를 예방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2시쯤 돌아가려던 일정이 하루 연장, 하지만 고려항공 전세기는 승무원들의 체류 문제가 걸려 있어 이날 김포공항에서 대기하다 평양으로 되돌아감. 전세기는 전날에도 북한 조문단을 김포공항에 내려준 뒤 곧장 이륙해 평양으로 돌아갔었음. 고려항공 전세기는 23일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해 조문단을 태울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연안호 풀어주라고 군부에 얘기했다(8/21,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어선 800 연안호 송환 문제와 관련, "북한 군부에 풀어주라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1일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 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연안호 선원 4명이 조만간 억류에서 풀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한 북한 조문단 파견기간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北, '12·1조치' 해제 남측에 통보(8/21, 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온 경의선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조치(12·1 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별첨1〉 현대-北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는 17일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백두산관광을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시작하며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이 같은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면담하면서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면서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이다.

1.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2.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보즈워스, 내달초 한·일·중 순방 검토”<RFA>(8/21)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에 대한 순방을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했음.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음.
- 최근 북한과 미국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등 북미관계 기류가 변화하는 가운데 보즈워스 대표의 한·일·중 순방 검토는 북미접촉 결과를 갖고 6자회담 참여국들과 대북정책을 다시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 일본이 이달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점도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순방을 통해 6자회담 등에 대한 입장을 재조율할 요인으로 꼽힘.
- RFA는 특히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순방을 통해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안보리 “다수국가 대북제재 이행 보고”(8/21)

-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터키의 파즐리 코르먼 대사대리는 20일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협력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코르먼 대사대리는 “각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고 만족스럽다”면서 “각국의 이행 보고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함.
- 1874호 이행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말 제출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보고서를 냄. 안보리는 6월12일 1874호 채택 당시 각국이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했었음.
- 우리 정부는 대북 무기·물품 금수,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행 보고서에서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한편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DPA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임명한 것과 함께 대북 금수물자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반면 중국은 각국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무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이행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DPA 통신은 전함.

● 골드버그, 철저한 北 자금 추적 촉구(8/20)

-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 강화를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미국 국무부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20일 통화당국 관리들과 민간 은행 경영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시할 것을 촉구함. 골드버그 조정관은 “현재 은행들 사이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커지고 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함.
- 그러나 그는 유엔에서 강화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금융기관들에 감시를 지속하고 가능한 한 모든 거래에 투명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골드버그 조정관은 싱가포르가 금융사기 대처나 북한 유입 금지 화물에 대한 검사 시행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제도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의 자금을 추적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함.

● 인도, 본토서 北무산호 추가 조사(8/20)

- 인도 당국이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본토로 예인해 추가 조사하기로 함.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의 해양 경비대 고위 관계자는 “해양경비대가 26일에 무산호를 (인도 동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항구도시인) 카키나다로 호송할 것”이라고 20일 말함.

● 한·미·일 지식인, 6자회담참여국들에 호소문(8/20)

-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진보성향 지식인 110명이 ‘미국,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국민에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이들 6자회담 참여국들이 “양자와 다자를 막론하고 실질적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호소문은 이들 공동서명자를 대표해 백낙청 교수, 임동원 전 통일장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미국 하버드대의 에드워드 베이커 교수 등이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함.



- 호소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화와 협상의 노선으로 돌아가 북미대립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북미간에 공식특사 파견을 포함해 공개와 비공개, 양자와 다자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주장함. 공동서명자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핵보유국들이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한 핵군축 전망을 제시하고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해 ‘동북아 군축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북한과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의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할 것을 제언하면서 중국, 러시아, 유엔 등에 대해서도 화해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함. 한국 44명, 미국 30명, 일본 36명 등이 서명한 이 성명에는 한국에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한완상 전 적십자사 총재, 시인 신경림 고은씨와 소설가 현기영 공지영, 영화감독 이창동씨, 6.15남측위원회의 김상근 상임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 함세웅 신부,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함.
- 미국에서는 찰스 암스트롱 콜럼비아대 교수, 노엄 촘스키 MIT 언어학 명예교수,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예일대 특별선임연구원, 코넬대의 마크 셸던 등이, 일본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 시라야나기 세이이치 추기경,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 강상중 도쿄대 교수 등이 참여함.

나. 미·북 관계

● 美전문가들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높아”(8/22)

-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한두달 내에 양자대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대부분 북미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전망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갈 경우 중국 등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어렵고 오바마 행정부 내에 여전히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려는 목소리가 높은 점 등을 들어 북미 사이에 조만간 한차례 이상의 양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음. 그는 그러나 북미 양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에 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북한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 간 근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회담이 진전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주요 외교목표는 대북 제재의 강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북미간 양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같은 미국의 관리가 평양에 가서 미국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음.
-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과 미국간 양자회담이 곧 개최되는 것은 물론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도 양자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다자회담에 대해서도 북미대화가 중심이 되는 형태라면 북한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北 김명길 일행, 라스베이거스.LA 방문(8/22)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면담을 마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일행이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21일 밝혔음.
- 임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김 공사와 북한대표부 백정호 참사가 미당국에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카지노의 수도(라스베이거스)를 ‘개인적으로 여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확인했음. 그는 그러나 이들의 여행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인 두 사람은 뉴욕시에서 반경 40km 이상 벗어날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 김 공사 일행은 지난 19일 뉴멕시코 샌타페이에 있는 뉴멕시코 주지사 공관에서 리처드슨 주지사와 만났으며 리처드슨 주지사는 회동 후 북한이 자국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슈퍼노트 미국서 잇단 적발” <美잡지>(8/22)

- 북한이 제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가 잇따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미국 잡지 ‘배니티페어’는 최근호에서 북한의 위폐, 마약제조, 재보험사기, 가짜담배 제조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집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음. 잡지는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폐가 최근 적발된 것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세관에 의해 액면가 38만달러 상당의 슈퍼노트가 적발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배달된 마른해산물 소포꾸러미에서 위폐가 발견된 이 사건으로 메이링천으로 알려진 중국계 인물이 체포됐음.
- 잡지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슈퍼노트의 품질이 너무 좋아 카지노 슬롯머신 기계에 장치된 전자 감식기를 무사 통과했다고 전했다. 잡지는 이들 경우에서 보듯이 이제는 상당한 양의 슈퍼노트가 미국 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발견되는 위폐들은 전문가들도 감식하지 못할 만큼 진짜 달러화와 똑같다고 우려했음.
- 북한의 위폐 제조 등 불법 활동은 김정일의 거액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39호실’에서 한때 일했던 한 탈북자 출신 인사는 북한이 20억달러 상당의



위폐를 찍기에 충분한 특수 종이를 2007년 구입했다고 말했다.

- 잡지는 지난 수년간 20여곳의 국가에서 마약 밀매나 위폐 등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최소한 50여개의 사건이 적발됐고, 이 때문에 상당수 북한 외교관들이 체포 또는 억류됐다고 전했다. 부시 정부 당시 북한 불법활동적발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1990년 이후 북한의 누적 무역적자가 100억달러가 넘는데, 결국 이 같은 현금 부족 사태를 '39호실'의 활동을 통해 매년 5억~10억달러를 메우는 것으로 추정했음.
- 한편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의 불법활동 단속의 영향으로 2004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했던 북한 소유의 골든스타은행이 문을 닫기도 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당시 이 은행은 슈퍼노트 유통을 지원하고 핵 물질 구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 골드버그 “미얀마 대북제재 준수 주시”(8/21)

- 미국은 미얀마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 준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21일 밝혔다.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있는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 도착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유엔) 결의안의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가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ARF 회담이 열린 지난달 미얀마 대표단을 만나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얀마는 동참을 약속한 바 있음. 미국은 지난 6월 불법 무기를 적재한 혐의로 미군의 추격을 받은 끝에 회항한 북한 선박 강남 1호의 목적지가 미얀마인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 북한-미얀마 간 핵협력 가능성을 의심해 왔음.
- 골드버그는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방문할 예정임.

● 러 언론 “北-美 사실상 대화 시작”(8/21)

-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와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간의 회동을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대화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21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음. 신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을 포함해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이나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나눴다며 전문가들도 이미 북·미 양자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은 이 신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전 정권과는 달리 실용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접근했기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문은 또 “미국과 북한의 만남은 화해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외교 절차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을 인용, 러시아 정부도 북.미 대화에 대해 아직 어떤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6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동북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북.미 양자회담이 공식화되면 주도권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 한편, 김명길 공사는 19일 리처드슨 주지사를 뉴멕시코 샌타페이 소재 주지사 공관에서 만나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20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해를 희생시키는 북.미 양자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美-北 외교적 타결 아직 험난” <美전문가들>(8/21)

- 북한이 최근 미국 여기자 석방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타결이 있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미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여기자 석방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접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국경개방 등의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일단 위기 국면이 휴지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 미 대통령 선거 기간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조언했던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적인 협상 잠재력을 예고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 외교관들과 만난 리처드슨 지사가 북한의 대미 대화 용의를 전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은 이전부터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대화용의를 표명해 온 만큼 이(대화용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6자)’ 형식과 관련해 “문제는 양자 또는 다자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리처드슨 대사가 왜 그런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빅터 차 교수는 진짜 난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과 같은 ‘보다 무난한’ 목표들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경우 북한이



● 버먼 “北, 6자회담 조건없이 복귀해야”(8/21)

- 중국을 방문중인 하워드 버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0일 “북한은 지체하지 말고 조건없이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만 한다”고 밝힘. 버먼 위원장은 이날 중국 정부 관리들과 잇따라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하원 외교위 측이 전함. 버먼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협력을 해낸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함. 그는 또 “중국과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한반도와 중동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라고 말함.

● “北 대화준비돼..美와 직접대화 원해”(8/20)

-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와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간의 회동이 19일 뉴멕시코 샌타페이 소재 주지사 공관에서 열림. 리처드슨 주지사는 김 공사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희망적 신호”라고 평가함. 그는 이어 CNN방송에 출연, “그들(북한)은 새로운 포맷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포맷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라고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거듭 전함. 그는 “6자회담 내의 직접 대화와 같은 절충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외교관들이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말함.
- 리처드슨 주지사는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서 “문제는 6자회담 내 인지 양자(대화)인지가 됐다”고 지적함. 그는 “그들은 6자회담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함. 이와 관련, 그는 “다음의 조치는 (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북한은 2명의 미국인을 석방했고, 상응하는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함. 그는 이어 “그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다시 (대화)에 관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해빙의 가능성을 봤다”고 밝힘. 그는 김 공사가 대화 재개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함.
- 김 공사 및 북한대표부 백정호 참사는 전날 뉴멕시코에 도착, 리처드슨 주지사와 만찬을 함께 했으며, 이날 회동에 이어 20일에도 재생에너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잠깐 만날 것이라고 주지사 측근들이 전함. 이번 회동은 북한이 최근 일련의 대외 화해적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측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짐. 북한 외교관들은 뉴욕시 반경 25마일 밖을 벗어날 경우 미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로 김 공사 일행의 이번 뉴멕시코 방문은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짐.



- 일각에서는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해 모종의 대미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를 일축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여행 승인이) 중요한 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종류의 여행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음. 그는 이어 “북한 외교관 2명의 뉴멕시코 여행을 반드시 긍정적 신호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해 김 공사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함.
- 임명을 요청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화해 움직임과 관련, “공격적인 언급과 도움이 되지 않는 언급 이후 나온 이런 일들을 환영하지만 이를 완전한 봄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백악관도 “이번 회동은 미 행정부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또 “주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함. 리처드슨 주지사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에너지 장관 등을 역임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상무장관에 지명되기도 했으며, 90년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교섭을 위해 2차례 방북한 바 있음. 그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뉴멕시코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을 만난 적이 있음.

● “클린턴 訪北통해 北상황 파악 성과” <NYT>(8/19)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전격적인 평양 방문은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시키는 성과 외에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상태 등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함. 타임스는 다수의 정부관리들 말을 인용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전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전함.
- 미국 정부는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식 채널 대신 북한 측과 면식이 있는 고위 정보관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북한과 같은 신비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단 20여 시간 만에 미국의 가장 큰 외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북한에 대한 실상에 접할 수 있었다고 타임스는 지적함.
-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귀국 후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있음. 타임스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였던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 그동안 사진 등을 통해 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측했던 관리들이 이번 방문 결과를 통해 자신들의 추측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짐. 예상보다 김정일의 실제 건강이



양호하다는 방북팀의 설명 때문임. 또 권력 전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김계관과 강석주가 건재한 것이 입증되면서 그동안 나돌던 내부 권력투쟁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보임.

-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인 조지프 디트라니가 비밀리에 주선한 것으로 알려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정보관리를 동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과의 협력상이 진행되던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는 정보관리를 동원하는 일이 없었음. 북한과의 공식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정보관리를 활용했다는 지적임.
- 디트라니는 2006년 국가정보국에 들어오기 전 국무부의 북핵 6자 회담 특사를 지냈으며 이때 북한 대표였던 김계관 등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짐. 디트라니는 또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과의도 함께 일한 적이 있음.

● 리처드슨, 김명길 北 유엔 공사와 회동(8/19)

-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과 회동함. 리처드슨 주지사의 대변인 앨러리 레이 가르시아는 18일 “주지사가 내일(19일) 뉴멕시코 샌타페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만난다”고 말함. 이번 회동은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9일 하루 종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함. 김명길 공사는 대표부 인사 1명을 대동하고 리처드슨 주지사를 방문할 예정임.
- 가르시아 대변인은 어떤 주제를 갖고 양측이 회동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측이 뉴멕시코주에서 개발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리처드슨 주지사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에너지장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직 연방 하원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과거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역류 인사 석방에 관여하는 등 미국 정치권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힘.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뉴멕시코의 주도(州都)인 샌타페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만난 적이 있음.

● 오바마-클린턴 백악관서 방북결과 논의(8/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청취함. 두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은 이달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처음으로,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유화조치와 맞물려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40분간, 이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등 총 1시간10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백악관이 회동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함.

-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4개월 이상 억류돼 있던 2명의 미국 시민을 석방해 내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한데 대해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힘. 또 성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여기자에 대한 ‘특별 사면’으로 이어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을 포함한 방북과정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두 여기자가 가족들과 안전하게 재결합하게 된데 대해 감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 회동에 앞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듣고 본 것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생각을 얻고 말할 중대한 기회”라고 말함. 이날 보고에는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머스 도닐런 부보좌관 및 백악관 비확산 관계자들이 배석함.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배석하지 않았고, 대신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보고에 배석함.
- 하지만 힐러리 장관은 남편의 보고에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최근 아프리카 순방 결과 보고를 위해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 이 자리에서 대북 문제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됨. 기브스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에게 두 차례 디브리핑을 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팀원들이 NSC, 국무부 및 다른 관련 부처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벌였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촉발시킨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조치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함.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시킨 외국 회사, 은행, 정부들과 같은 ‘확산 파이프라인’의 또 다른 끝을 겨냥한 국제적 노력을 미국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힐러리 비서실장이 ‘여기자’ 해결조율”(8/19)

-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 사건 해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인 세를 밀스가 미국 정부 내 조율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18일 알려짐.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방북 결과 보고 자리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 대신 밀스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뒷얘기를 전함.
- 켈리 대변인은 “밀스 비서실장은 국무장관이 유나 리와 로라 링 기자의 북한 억류 문제를 다루도록 지명했던 인물”이라면서 “그래서



그가 (여기자 석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조울했다”고 말함.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간의 회동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배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힐러리 장관과 콜롬비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비슷한 시간에 열린 스케줄 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는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인 힐러리 장관에게 방북 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그(클린턴)가 자신의 인상을 장관과 공유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국무장관과 전·현직 대통령간의 대화 내용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오랜 입장”이라고 덧붙임. 한편 켈리 대변인은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의 2차 아시아 순방 목적과 관련, “진행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 금융부처 및 세관 당국 등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무부 “北조치 충분한 것 아니다”(8/18)

-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현대그룹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다른 길로 가기로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현대그룹간의 합의에 대해 “명백히 이는 환영할 조치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크롤리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의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조그만 제스처로 환영할 조치”라고 평가함.
- 그는 이어 “이런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은 본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계속 언급해왔다”고 말함.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그들이 2005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와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힘. 특히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근본적인 계산을 했음을 보여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 북한이 최근 일련의 유화적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 대해 “누가 알겠느냐”면서도 “북한이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압력, 아니면 이들 둘 다의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함. 그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지난주 언급한대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사실상 이런 압력이 북한의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금강산-개성관광, 유엔결의 저촉되나>(8/17)

-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방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저촉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1874호가 인도주의·개발 목적이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과 국제금융 및 신용기관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금강산·개성관광이 현대아산이라는 민간 기업의 사업이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결의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이 북한에 핵 및 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가 순수하게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함.
- 다른 당국자는 “금강산·개성 관광은 WMD와 무관한 관광사업일 뿐으로, 안보리 대북결의와 통상적인 교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안보리 제재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재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함. 이와는 달리 이 같은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 줄을 차단함으로써 핵 및 WMD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게 안보리 결의의 전체적인 취지”라며 “이런 측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 다른 정부 관계자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통해 북측에 유입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다면 안보리 대북결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이 금강산·개성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핵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함. 아울러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대북협력기금이 사용되고 동시에 추후 관광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뿐만 아니라 공여나 원조 형식의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도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외교부 당국자는 “현대아산이 주체가 되는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이더라도 대북협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이 관련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북측과의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후 필요한 지원이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현정은 회장으로부터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듣고 북측 의도의 진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진행할지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中, 北에 고위급 특사 파견 검토”(8/21)

- 중국이 북한의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17일 방북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21일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의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번 방북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 회동을 갖고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북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특사가 아니라 6자회담 의장이자 차관급인 우다웨이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고위급이 아니어서 방북 기간 북한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권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집중된 북한에서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박의춘 외무상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예방하는 수준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일반적인 분석임. 이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가진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中우다웨이 부부장, 방북 마쳐(8/21)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7일부터 21일까지 방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우 부부장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이번 중앙통신의 보도로 우 부부장이 4박5일간 북한에 머문 것이 확인됐다.
- 중앙통신은 우 부부장이 방북기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예방하고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조(북).중 친선관계와 지역정세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됐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중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자회담 재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과 미국이 강조하는 6자회담 내 양자회담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를 집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다웨이 부부장은 방북 기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집단체조 ‘아리랑’공연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中 교역 크게 줄어들어” <블룸버그 르포>(8/19)

- 북한이 3개월 전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북한-중국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국 접경 단둥 현지 르포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 여파로 양측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19일 전함.
-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가 북한 경제를 더욱 조여오고 있으며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이러한 압력이 최근 미국 기자 석방 등 북한 정권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인 베이징 대학의 주 평 교수는 지적함. 주 교수는 핵심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김정일 정권은 유연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엔의 제재범위가 비록 넓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북-중간의 현금 흐름을 차단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철수한 이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왔으며 6월에는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고 지난 7월에는 북한으로 반출되려던 군사전략 물자를 압수·조치함. 워싱턴 소재 미 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척도가 되는 대북 무역흑자도 올 상반기 중 3억8천6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전체의 12억7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의존자이며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줄어드는 것은 북한에는 지난 1990년대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이는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에게 우려스러운 전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중국 측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북-중 교역량은 1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중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는 676억달러였음.
- 테스코 슈퍼의 관계자는 가게를 찾는 북한인들의 수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씹씹이도 줄어들었다고 전함. 한 번에 1만위안(약180만원) 씩 사던 사람들이 수천위안으로 줄었다는 것임. 한달에 10여대씩 팔리던 발전기도 거의 팔리지 않고 있음. 가게 주인은 “북한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함. 압록강 상 국경다리를 굽어보는 가게 주인들은 또 다리를 오가는 교통량도 지난 5월 이래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전함.

● 中 우다웨이 방북길 올라(8/17)

-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오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름. 우 부부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에 출발 예정인 중국 국제항공(CA) 편에 탑승하기 위해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제3터미널에



- 이에 대해 커런트 TV의 브렌트 마커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찬우 목사와 두리하나선교회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목사등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음.

● 강리치 前美하원의장 “中, 대북압박 무관심”(8/20)

-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초청으로 방한한 강리치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의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6차 교류재단 포럼에서 ‘북핵사태에 즈음한 한미관계의 현황과 미래 비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중국의 6자회담 담당자들과 얘기해봤지만 이 문제에 그리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이같이 밝힘.
- 강리치 의장은 “전세계는 현재 ▲과학기술의 폭발적 발전 ▲중국과 인도의 발전 ▲대량살상무기(WMD) 3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핵 문제에 언급, “6자회담은 의미가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지난해 10억달러를 제공하는 등 계속 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김정일, 또는 그의 후계자가 누구이든지 (오판 등에 의해) 실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또 “북한은 생존적 차원에서 서울을 공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함.
- 미사일방어(MD) 계획과 관련, 그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선박 외) 트럭 등으로도 운반될 수 있는 만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 관리가 이란 대표단과 미사일 개발 현장을 돌아보는 북 TV의 보도 내용을 지적한 뒤 “이는 미사일 마케팅 시장 같다. 북한은 이런 것 외에 해외에 내다 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함.
- 강리치 전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핵보유를 용인하는 등 타협할 가능성’(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즉답은 피한 채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한국에 더욱 치명적이다”고 말함.
- 강리치 전 의장은 “중국이 도움을 안 주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북을 압박해야하는지, 또 이렇게 되면 자살폭탄 사용도 가능한 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당근이나 채찍 중 선택이 어렵다”고 말함.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 제약이 있는 만큼 수사가 아닌 흥금을 터놓고 북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함.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강리치 전 의장은 “FTA가 미국에도 경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확대 일로의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도 계속 경쟁해야 한다”고 말함. 미국내 산



- 갖고 중대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후 주석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방안,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후 주석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중국 방문을 초청했음.
- 한편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상무위원장이 오는 31일부터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미-중 양국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다. 미·러 관계

● 미-러 아프간 협정 내달 6일 발효(8/21)

-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아프가니스탄 군사 협력 협정이 내달 6일 발효된다고 20일 러시아 언론이 보도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 비준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협정은 예정대로 9월6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힘. 지난 7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 영공을 통해 아프간에 군사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함. 협정은 연간 4천500회까지 군사 물자와 병력을 실은 군용기 통과를 허락하고 있음.
- 앞서 지난 1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보도 9월6일 이후 러시아 영공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미국은 아직 구체적 운송 계획을 러시아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러시아는 양국 간 협정이 아프간의 안보와 안정, 재건을 확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라. 중·일 관계

● 中, 올해 ‘일본청서’ 첫 발행 (8/20)

- 중국이 지난 19일 일본에 대한 최고 권위의 연차 보고서인 ‘일본청서’를 처음으로 발행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전함.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발간한 일본청서는 지난해 일본을 경제, 정치, 외교, 사회문화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서 기술하고 있음. 집필자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내 일본 연구자들임.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0년부터 매년 ‘일본발전보고’라는 제목의 연구물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이를 청서로 격상시켰다고 신문은 전함.
- 이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연구가 중국에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회과학원측은 밝힘. 중국은 미국청서, 유럽청서 등은 이미 출간하는 것으로 알려짐. 청서는 지난해 일본을 “국제금융위기와 55년 체제 붕괴 후의 정당정치의



혼란 등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격차도 확대돼 일본 사회는 과도기를 맞았다”고 총평함. 55년 체제는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청서의 언급은 자민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참의원 여소야대 등으로 일본내 정치 상황이 급변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 경제 부문에서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중국산 ‘농약만두’ 파문과 관련, “일본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중일 관계 개선에 불만을 가진 일본 내 우익세력이 사건을 이용해 선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동시에 “농약만두 사건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면에서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중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시각도 포함함.
- 북일 관계에 대해 청서는 “일본은 전쟁(2차대전)에 대한 반성 및 전후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북한측의 이해와 협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동시에 “북한측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간 대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美 핵무기 반입 안한다”(8/23)

- 30일 총선에서 정권 장악이 유력한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23일 미국이 일본 내로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음.
- 교도(共同)통신은 하토야마 대표가 이날 니혼TV의 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과거 미국 핵 탑재 함선의 일본 통과·기항을 용인했다는 밀약설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음. 그는 “비핵 3원칙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으로서 각오를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필요하지만 미국도 현재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 측에 ‘비핵 3원칙’의 하나인 ‘핵 반입 금지’를 약속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하토야마 대표는 또 집권할 경우 “내년 국채 발행량은 올해보다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채발행을 늘리면 국가가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그는 “올해 국채발행을 많이 늘렸는데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이 좀 들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부의 재정확대가 경기회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드러냈음.



바. 기타

● 李대통령, 김정일위원장 구두메시지 접수(8/23)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았음.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접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음.
- 이 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 대변인은 “오늘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음.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예방 후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음.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조문단 접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외교관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그는 또 “면담 시간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접견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유 있게 잡은 것”이라며 “오늘 면담은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였고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면담 형식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다”며 “남북이 동족이고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이제 남북관계도 국제적, 보편타당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배석했음.

● 北특사조문단 평양 도착(8/23)

- 이명박 대통령 예방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23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신속히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1분께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던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이 23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전했다.
- 통신은 그러나 김기남 비서 등이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북한은 이번 조문단에 대해 파견 사실부터 출발, 귀환에 이르기까지 조문단의 발착을 신속히 전했다.

● 北조문단, 평양으로 귀환(8/23)

-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이 23일 낮 12시1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향했음. 김 단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조문단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청와대를 예방, 이명박 대통령과 30분 가량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음.
- 청와대 예방을 마치고 숙소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로 돌아온 김 비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잘 됐다”고 답했고 출국에 앞서 숙소를 떠나며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음.
- 지난 21일 서울에 도착한 북측 조문단은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며 김 전 대통령 조문, 이희호 여사 면담, 현인택 통일부 장관 면담, 청와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음.
- 조문단은 통일부 홍양호 차관과 김남식 교류협력국장의 배웅을 받으며 고려항공 특별기를 이용, 서해직항로로 귀환했음.

● 인도 “中 인도양 움직임 주시”(8/21)

- 인도가 최근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함. 팔람 라주 인도 국방담당 국무장관은 20일 열린 전쟁 및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은 지역 열강으로 (향후 인도양 인근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만약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 라주 장관은 또 중국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도양 상의 항로를 지키려 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이미 일부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라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중요 해상로인 인도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다만 그는



아직 인도와 중국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라주 장관은 “현재 양국 관계의 핵심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무역이다. 비록 우리가 중국과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아직 충돌은 없다”고 말함.

● “日 총선 세습후보 174명”(8/19)

-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오는 8월 30일 치러질 중의원선거가 18일 공시된 가운데 출마가 확정된 1천374명의 여야후보중 13%인 174명이 세습후보로 분류됐다고 19일 보도함. 세습후보는 자민당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37명, 공명당 2명, 기타 22명 등이었음. 마이니치 신문의 세습후보 기준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회의원인 경우임.
- 하지만 자민당과 민주당은 ‘3촌이내의 친족이 국회의원인 선거구를 물려받는 경우’를 세습후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 경우 세습후보는 166명으로 2005년 선거때의 164명과 비슷함. 2005년 선거때와 비교해 자민당의 세습후보는 4%포인트 증가한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감소함.

● 하토야마 “미·일 핵 밀약 1년내 결론”(8/18)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8·30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미국과 일본 간의 ‘핵 밀약’ 문제에 대해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한 것임.
- 하토야마 대표는 17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정당대표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의무성뿐 아니라 미국에도 가서 조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어 그는 조사 기한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라며 “사실이 명백해지면 국민에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함.

● 日 총선 공시…공식 선거전 돌입(8/18)

- 일본의 차기 정권을 선택하는 8·30 총선이 18일 공시돼 30일 투표일까지 12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함. 이번 선거는 고령화 및 저출산, 경기 침체 등 많은 당면 과제를 가진 일본의 향후 국정 운영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권이 맡게될 지가 최대 초점임.
- 특히 총선과는 달리 제1야당인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정권교체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일본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총선 공시로 사실상 선거전이 종반 전에 접어들에 따라 여야 각당은 정권공약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득표전에 나선다는 방침임. 당면한 정책으로 자민당은 집중적인 경기 대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민주당은 어린이 수당 확대 등을 통한 가계 지원을 내세우고 있어 이들 정책을 위한 재원 문제도 종반 선거전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4년 전 실시된 총선 이후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실적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됨. 여야 각 당 및 무소속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선거구 출마자 신고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접수를 하게 됨.
- 정원은 전국의 300개 소선거구와 11개 권역별 비례대표 180명 등을 포함해 총 480명임. 이번 총선 입후보자는 4년 전 총선의 1천131명보다 많은 1천370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자민당과 공명당은 약 260개 소선거구에서 함께 후보자를 내세워 정면 대결을 벌임. 자민당 총재인 아소 총리와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신당일본 대표는 도쿄에서, 하토야마 유키로(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오사카(大阪)에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공명당 대표는 가나가와(神奈川)에서, 후쿠시마 미즈오(福島瑞穂) 사민당 당수는 오키나와(沖縄)에서 각각 선거 공고일 이후 첫 유세를 가짐.
-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 공산당, 국민신당, 여러분의 당, 개혁클럽, 신당일본 등 7개당은 17일 비례대표 명부를 발표했고, 민주당은 추가 조정을 거쳐 18일 오전에 이를 발표함. 자민당은 소선거구 289명, 비례대표 단독 37명 등 326명을, 민주당은 소선거구 271명, 비례대표 단독 59명 등 330명을 공천함. 공명당은 총 51명, 공산당은 171명, 사민당은 37명, 국민신당은 18명, 여러분의 당은 15명, 개혁클럽은 1명, 신당일본은 8명의 후보 등록을 함.

● 호주, 中과 410억弗 규모 가스 공급협정 체결(8/18)

- 호주 정부가 중국과 500억 호주달러(미화 410억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 협정을 체결했다고 호주 관리들이 18일 밝힘. 마틴 퍼거슨 호주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주 북서 해안 가스전 개발 사업인 고르곤 프로젝트에 중국이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는 중국에 향후 20년간 총 300억 호주달러 규모의 LNG를 공급하게 됐다고 발표함.
- 그는 이어 이번 계약은 호주에서 체결된 역대 단일 투자 계획 중 최대 규모라면서, 호주는 외국인들의 투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국가인 만큼 앞으로도 호주 보유 자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 체결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



졌으며, 고르곤 프로젝트의 주관 사업체인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과 중국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함.

● “호주-중국 관계 급속도 악화” <濠언론> (8/18)

-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8일 보도함. 중국 정부는 멜버른국제영화제(MIFF)에 초대돼 호주를 방문했던 위구르족 인권운동가 레비야 카디르(62.여)의 비자발급과 호주 철광석수출가격 협상 부진 등을 내세워 고위급 인사의 호주 방문을 취소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중국은 카디르 비자발급에 항의, 호주 주도 ‘아시아-태평양지역공동체’ 결성 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차원에서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의 호주 방문을 취소함. 그는 지난 5일 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즈에서 열린 태평양제도포럼(PIF)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는 그보다 직급이 낮은 PIF 담당 특사를 대신 보냄. 종전까지만 해도 PIF에 부부장급 인사를 참석시켜 온 중국으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카디르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은 명백하다”고 말함.

● “미얀마, 핵시설 건설 의혹 부인” (8/17)

- 미얀마 군사정권은 일각에서 제기된 비밀 핵시설 건설 의혹을 부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얀마를 방문했던 짐 웹 미국 상원의원을 인용, 17일 보도함. 태국 방콕에 체류중인 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미얀마를 방문하는 동안 미얀마 군정 최고 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과 핵시설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미얀마 정부의 고위층으로부터 핵시설 건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힘.
- 앞서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1일 호주국립대 전략문제 연구학자 데스몬드 볼 교수 등이 미얀마 망명자들을 2년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얀마가 북한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부 산악 지역에 동굴을 뚫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참고 1] <현대-北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연합뉴스, 8/17)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는 17일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백두산관광을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시작하며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이 같은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면담하면서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면서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이다.

1.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 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2.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

dhkim@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8/17/0511000000AKR20090817005000014>.
HTML